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참된 아버지에게서 참된 애기를 듣고 빛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의 의무는 모든 이를 어둠에서 꺼내어 빛 속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질문:** 누군가에게 지식을 줄 때 자녀인 너희들은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냐?

**대답:** 끊임없이 너희 입에서 계속 “바바, 바바”라는 말이 나오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것”에 대한 너희의 의식이 끝날 터이기 때문이다. 유산도 역시 기억날 것이다. “바바”라 하면 편재에 대한 관념이 깨진다. 만일 누군가 신이 편재한다고 말하면 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이의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라.

**노래:**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네...

음 산티. 자녀들은 뭐라 말하고 또 누구를 “오 지식의 대양! 오 지식의 태양, 바바!”라 소리쳐 불렀느냐? 신은 “바바”라고 불린다. 신은 아버지이며 그래서 너희 모두 자녀들이다. 자녀들은, “이제 저희들은 암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저희를 빛 속으로 데려가 주소서!”라 한다. “바바”라 함으로써 너희가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바바”라 할 때 너희는 사랑을 경험하는데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슈와르”나 “프라부”라 불러서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그렇게 좋은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다. “바바”라 함으로써 너희는 각자의 유산을 기억한다. 너희는 “바바, 저희들은 암흑 속에 떨어졌습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지식의 등불을 밝혀주소서!”라 소리쳐 부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들의 빛이 꺼졌기 때문이다. 누가 죽으면 사람들은 열 이틀 동안 등잔불을 밝혀둔다.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 밤새도록 깨어있으면서 등불을 지킨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너희 바라트 사람들은 빛 속에 있었는데, 즉 낮이었는데, 지금은 밤이다. 12시간 동안은 낮이고 12시간 동안은 밤이다. 그것은 제한적인 측면이다. 이 낮과 밤은 무한하다. 그것은 브라마의 낮인 황금시대와 은시대, 그리고 브라마의 밤인 동시대와 철시대라고 불린다. 밤에는 어둠이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비틀대며 해낸다. 그들은 신을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지만 신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신을 얻기 위해 신봉을 행한다. 신봉은 동시대에, 즉 라반의 왕국이 시작될 때 시작된다. 다세라 (라반을 불에 태우는 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지어져 왔다. 그들은 마음의 상상으로 이야기들도 역시 지어냈는데, 예를 들면 영화, 연극 등을 만들어 왔다. 슈리마드 바가와드 기타는 진실이다. 지고의 영혼이 와서 너희 자녀들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쳤고 왕국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이야기들을 지어냈다. 비야스가 기타를 썼다, 즉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제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진실된 말을 듣고 있다. 너희는 항상 계속해서 “바바, 바바”라 해야 한다. 지고의 영혼은 우리들의 바바다. 그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천국의 유산을 받아야 합당하다. 84생을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자녀들아, 너희 바라트 사람들은 태양왕조와 달 왕조에 속했었다. 너희가 세계의 주인이던 때는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크리스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불렸다. 여기 이것은 악마들의 나라다. 그것이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밥다다가 너희들에게 상기시킨다. 갠지스 강이 아닌, 오직 아버지만이 지식의 대양, 평화의 대양, 정화자다. 신부들 모두에게 신랑인 신은 단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이를 모른다. 이런 이유로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저희는 모릅니다, 라 대답한다. 오 영혼들아!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제 아버지를 모를 수 있느냐? 그들은 아버지인 신에 대해 말하지만, 그의 이름과 형태가 뭐냐고 묻거나 그를 알아보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그가 편재한다고 얘기한다. 자녀들의 아버지가 편재할 수 있느냐? 라반의 사악한 지시를 따름으로써 사람들은 참으로 몰지각해졌다. 육체의식이 으뜸가는 악덕이다. 자기들이 영혼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나는 아무개다, 라 한다. 그것은 몸에 대한 언급이다. 사실 자기들이 진정 누구인지 그들은 모른다. “나는 판사다, 나는 이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리다. “나”와 “나의 것”은 서로 별개인 두 가지다. 영혼은 불멸하고 몸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름은 몸에 붙여진다. 영혼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의 이름은 쉬바다. 사람들은 심지어 쉬바의 탄신일을 축하하기까지 한다. 무체인 분에게 어떻게 생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도 그가 들어간 그 사람을 모른다. 영혼들 모두의 이름은 영혼이다. 지고의 아버지의 이름은 쉬바이며, 나머지들은 모두 살리그람들이다. 모든 영혼은 자녀들이고, 쉬바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다. 그는 무한한 아버지다. 모든 이가 소리쳐 그를 부르며, 오셔서 저희를 정화시켜 주소서! 한다. 저희들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소리쳐 부른다. 슬플 때는 자녀들 모두가 그를 기억하는 반면, 그들이 행복할 때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라반이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이 라반이 너희의 오래된 적이다. 이것은 창조되어 있는 드라마의 연극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

든 이가 다 어둠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쳐 부르며, 오 지식의 태양이시여, 오셔서 저희를 빛 속으로 데려가 주소서! 한다. 바라트가 행복의 나라이던 때에는 아무도 소리쳐 부르지 않았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계속 소리쳐 부르며, 오 평화의 공여자여! 라 한다. 아버지가 와서 평화가 너희들 본연의 종교이며 너희 목에 걸린 화환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영혼들은 평화의 나라의 주민들이다. 평화의 나라에서 너희는 행복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행복의 나라로 간다. 괴로워하며 소리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자비를 베푸소서! 바바, 슬픔의 제거자, 행복의 공여자여, 오소서! 라 부르는 것은 오직 그들이 슬플 때뿐이다. 쉬브 바바, 다정하신 바바, 다시 한 번 오소서! 라고. 그는 틀림없이 온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쉬바의 탄신일을 축하한다. 슈리 크리슈나는 천국의 왕자다. 그의 탄생일도 역시 축하되지만, 크리슈나가 언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데와 크리슈나가 결혼하면 락쉬미와 나라얀이 된다.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인간들은 계속 소리치며, 오 신 아버지! 라 부른다. 앗차, 그들에게 그의 이름과 형태가 무엇이나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은 그가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오! 너희는 그를 신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그가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늘은 빈 공간이지만 그것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다.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과 형태를 모른다고 얘기한다. 앗차, 너희들이 제 자신은 아느냐? 그렇다, 나는 영혼이다. 앗차, 영혼의 이름과 형태는 무엇이나? 그들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영혼이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을 수는 없다. 영혼은 이마 가운데 있는 별 같은 하나의 점이다. 그토록 작은 영혼에 84생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7일간의 용광로가 기억되어 온 이유가 이것이다. 라반의 왕국은 동시대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는 줄곧 악덕들이 존재해 왔다. 너희는 계속 사다리 아래로 내려왔다. 이제는 모든 이가 다 일식에 가려졌으며 추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오 지식의 태양이여, 오소서! 오셔서 저희를 빛 속으로 데려가 주소서! 라 소리쳐 부른다. 사트구루가 지식의 연고를 발라주면 무지 (어둠)는 사라진다, 라는 말이 있다. 지각은 아버지를 기억한다. “구루가 연고를 발라주면...”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구루들은 많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지식은 없으며, 그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지식의 대양, 정화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공여자다. 그러한즉 다른 누가 지식을 줄 수 있겠느냐? 성인들은 신을 만나는 길이 여럿 있다고, 즉 경전들을 공부하는 길, 희생의 불을 지피는 것, 타파샤 등을 하는 것 등이 모두 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불순한 자들이 어떻게 순수한 세계에 갈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이르는데, 내가 친히 왔다. 신은 단 하나뿐이다.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는 신인들이며, 신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들의 아버지는 쉬바다.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 인류의 아버지도 여기에 존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쓰여 있는 이름은 ‘프라자피타 브라마 쿠마리스 협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녀들이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 많다. 유산은 브라마가 아닌, 쉬바에게서 받는다. 유산은 다다 (할아버지)에게서 받는다. 그가 여기 앉아서 브라마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갈 가치가 있게 만든다. 그는 브라마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입양한다. 자녀들은,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유산을 차지합니다, 라 한다. 비슈누의 나라는 브라마를 통해서 세워진다. 쉬브 바바는 너희에게 라자 유가를 가르친다. 기타는 신의 고결한 지시다. 신은 무체인 단 한 분뿐이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84생을 취했다. 영혼들은 오랫동안 신과 헤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헤어져 지내온 것은 바라트 사람들이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맨 처음에 헤어지는 자들이 된다. 너희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려고 이리로 왔다. 바바가 이르는데, 오 영혼들아, 이제는 너희 아버지인 나를 기억해라! 이것은 기억의 순례, 요가의 불이다. 너희 머리 위에 얹힌 죄의 무게가 이 요가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오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황금시대에 있던 너희가 철시대로 들어왔다. 자 이제는 나를 기억해라! 이것은 너희가 지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너희의 몸과 육신의 친척들을 잊고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 너희는 영혼들이고, 그것은 너희의 육신이다. “나, 나”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다. 라반이 너희를 불순하게 만들었다. 이 연극은 미리 정해져 있다. 순수한 바라트와 불순한 바라트가 있다. 너희들이 불순해지면 라마의 왕국을 원한다고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친다.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한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지식을 주는 지식의 대양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와서 1초에 너희들에게 유산을 준다. 이제 너희는 태양왕조와 달 왕조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속한다. 그러면 너희는 황금시대와 은시대에 불멸해진다. 너희가 거기서는 아무개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황금시대에는 불시의 죽음이 없다. 너희는 죽음을 정복하며, 슬픔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것은 행복의 나라라고 불린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너희에게 천국의 주권을 준다. 거기에는 안락함의 시설들이 대단히 많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대단한

사원들을 지었다! 심지어 그때까지도 그들은 엄청난 부를 가졌었다. 바라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보아라! 나머지 영혼들은 모두 비물질세계에 있었다. 너희 자녀들은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바바가 지금 천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분은 쉬브 바바이고, 그 다음이 서틀 리전의 주민인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다. 그 다음이 이 세계다. 너희 자녀들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지식, 신봉, 무관심이 기억된다. 낡은 세계에는 무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황금시대에 주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이제는 나 하나만 끊임없이 기억해라! 나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나에게 올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 실천 요지:

1. 너희 머리 위에 놓인 죄의 무게는 요가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너희 몸과 육신의 친척들 모두를 지각에서 지워 없애고 아버지 한 분만 기억해라.
2. 소리쳐 부르거나 괴로워하며 울부짖지 말고 너희 본연의 종교인 평화 속에 안정해 머물러라. 평화는 너희 목에 걸린 화환이다. 육체의식으로 “나” “나의 것”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축 복:** 수용력을 지닌 마스터 대양이 되어 봉사의 무대 위에서 성공의 이미지가 되어라. 너희가 봉사의 무대 위에 오르면 온갖 유형의 상황들이 너희 앞에 온다. 그 모든 것을 너희 안에 수용해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의 형상이 될 것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에 대한 불쾌한 상황이나 느낌마저도 너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치 애초에 무자비한 말을 듣지도 않았던 듯한 그런 방식으로 무자비한 말들을 자애의 느낌으로 변화시켜라. 결함들을 미덕으로, 비방을 칭찬으로 변화시켜라, 그러면 너희가 대양의 마스터라고 불릴 것이다.

**슬로건:** 확장이 아닌, 오직 본질의 핵심만을 보고 내면에 합쳐 넣는 자들이 집중적인 노력가들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